

# 東友

###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제217호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현(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통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2018년  
더 새로워집니다.

무술년 새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지혜가 모입니다. 조직이 새롭게 구성됐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줄 신입 직원들도 입사했습니다. 지령 3만호의 역사가 곧 다가옵니다. 치열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을 이뤘듯, 오늘의 최선으로 동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와 가치, 조직문화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가운데)이 1월 2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신년 하례 및 시무식에서 개띠 해 출생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 센테니얼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 동아미디어그룹 2018년 신년 하례 및 시무식 개최 “이제 동아의 새로운 100년은 어떠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이제 동아의 새로운 100년은 어떠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며 ‘뉴 센테니얼(New Centennial)’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무술년 신년 하례 및 시무식에서 “동아의 첫 100년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의 새로운 100년에 대한 준비를 2018년 화두로 강조한 것이다.

#### 새로운 100년의 준비

이를 위해 독자와 시청자가 공감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는 ‘텔링(Telling)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사실로 하여금 얘기토록 하는 우리의 본령은 철저하게 지키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말을 거는 방식은 겸손하고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동아미디어그룹 전체가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김 사장은 “홀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일하면 힘이 나고 또 건전한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프로-크리에이터’(Pro-Creator)가 되었으면 한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환경 속에서 각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프로페셔널리즘’이 인정받는 조

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98년간 매일같이 치열하게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를 동아의 이름으로 지켜왔듯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 성과로 이어진 변화와 도전

동아미디어그룹은 지난해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성과로 △동아일보 5년 연속 독자와 기업신용평가 우수 등급 획득 △매체합산 여론 영향력 평가에서 신방 경영 언론사 중 1위 차지 △동아일보 ABC 유료부수 2위 탈환 등을 꼽았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는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문제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채널A의 성장은 동아미디어그룹을 설레게 했다”고 평가했다. 김 사장은 이런 성과에 대해 “동아미디어그룹 가족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은 동아미디어그룹 간부와 국·실·본부 별 대표 사원, 개띠 해 사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개띠 해 직원들과 함께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신년 기념편지를 읽었다. 김 사장은 시무식이 끝난 뒤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 2018년 동아미디어그룹의 힘찬 전진... 3대 경영방침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전진이 시작됐다. 2018년 동아미디어그룹은 △독자와 시청자가 공감하고 의미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텔링(Telling) 콘텐츠’를 만들고 △경계를 허물고 영역 구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에 적극 나서며 △‘프로-크리에이터’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프로페셔널리즘’ 조직 문화를 중요시하는 ‘3대 경영 방침’을 정했다.

#### ‘텔링 콘텐츠’ 제작

‘텔링 콘텐츠’는 독자와 시청자가 공감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동아가 전하는 뉴스와 콘텐츠에 사람들의 가슴이 뛰고 콘텐츠 그 자체가 스스로 살아 숨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엄숙한 팩트에 ‘소프트 텔링’을 더할 때 우리의 뉴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것”이라며



“콘텐츠에 들어있는 스토리와 이미지 등 모든 요소가 매력적으로 세상에 전달될 때 동아미디어그룹의 ‘브랜드 텔링’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계 허무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

는 것이다. 각자 해온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것을 하나로 이어보고, 같은 것을 둘로 나누어 보고, 뒤집어 보는 과정 등을 통해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미디어의 영역 구분도 뛰어 넘어서자는 것.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이 성공하기 위해 해선 홀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함

게 일하면 힘이 나고 또 건전한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김 사장은 “동아미디어그룹 안팎을 가리지 말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 ‘프로-크리에이터’가 다양한 역할 수행

‘프로-크리에이터’는 개인이 독립 크리에이터를 자임하는 시대에 진정한 프로페셔널 콘텐츠 창조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멀티-프로페셔널리즘’ 조직 문화는 우리 모두가 ‘프로-크리에이터’가 돼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환경 속에서 각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향한다. 김 사장은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동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힘을 보태고 함께 나누며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 동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조직개편 단행

\*뉴 센테니얼 본부: 장기발전 과제-브랜드 가치 높일 방안 연구  
 \*콘텐츠기획본부: 위아래 경계 파괴 등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신설부서: 채널A 편성본부, 경전실 IP 법무팀, 사료연구실 등

동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2018년 '3대 경영방침'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프로-크리에이터'(Pro-Creator)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프로페셔널리즘' 조직문화를 통해 살아 숨쉬는 콘텐츠와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업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사내 다양한 조직과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사 편찬 작업을 위해 '사료연구실'을 신설했다. 사료연구실은 지식서비스센터에 겸직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새로운 100년 준비

20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뉴 센테니얼'(New Centennial) 본부가 신설됐다. 행정조직 같은 딱딱한 느낌 대신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부터 세련되게 정했다.

뉴 센테니얼 본부는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허브다. 단순히 100주년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동아 100년을 위한 장기 발전 과제 및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동아일보와 동아미디어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뉴 센테니얼 본부는 미래지향적이며, 확장성을 가진 조직이다. 뉴 센테니얼을 상징하는 NC는 새로운 100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NC는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일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New Change)일 수도 있다. 뉴 센테니얼 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각 계 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동아 100년을 위한  
장기 발전 과제 및 전략을  
개발할 예정

## 3대 경영방침 뒷받침

사람들의 가슴이 뛰게 하는 '텔링(Telling) 콘텐츠'를 만들고,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에 적극 나서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우선 콘텐츠기획본부에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수익가치 제고를 위해 이슈&피플팀, 비즈&컬처팀이 신설됐다. 주니어 기자들이 합류해 연차에 따른 위아래 경계를 파괴하고, 시니어 기자들이 정년까지 현장을 누비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기획 시리즈



사진=편집국 사진부 장승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조직'. 동아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협업'을 올 해의 중요한 조직목표로 세웠다.

와 다양한 섹션 제작을 통해 동아일보 지면을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편집국에선 산업부를 분리해 산업1부는 재계와 IT를, 산업2부는 부동산 유통 분야를 맡게 됐다. 디지털 통합뉴스센터의 기능은 신문과 방송 뉴스제작에 맞춰 편집국과 보도본부에 각각 디지털뉴스팀을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했다. AD본부 미디어사이니지팀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를 선보인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관리하고,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진

락실 내에 IP법무팀이 신설됐다. 사내 변호사가 주축이 된 IP법무팀은 동아일보와 채널A 겸직부서로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콘텐츠 계약 검토, 소송 대응 등 각종 법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프로-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멀티-프로페셔널리즘'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서들도 대거 신설됐다.

채널A는 콘텐츠 편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본부의 콘텐츠 편성전략팀과 플랫폼 운영팀을 분리해 편성본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전략기획 본부는 채널A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제작본부의 제

작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작4팀이 신설됐다. 제작4팀의 가세로 인해 올해는 더 다채롭고 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에선 조직원이 가진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편집국 부국장들은 각각 콘텐츠기획본부장과 청년드림센터장을 겸직하며 사회적 공유가치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보도본부 부분부장들은 보도제작팀장, 디지털뉴스팀장, 뉴스이노베이션팀장을 겸직하며 채널A 뉴스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 4차 산업혁명의 길, 한눈에 보다... 국내 최고 비즈니스포럼 개최

7회째 맞이한 동아비즈니스포럼, 차별화된 솔루션 제시하며 계속 진화 '제1회 코틀러 어워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참석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도 힘써

동아비즈니스포럼이 기존 포럼의 한계를 넘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경영 거장들을 초청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영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 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섭외해 포

럼의 격을 높였다.

또한 플랫폼 전략의 대가인 마셜 벤 엘스타인 보스턴대 교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의 저자인 알렉산더 오스터왈더 등도 연사로 초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통찰을 제시했다.

이처럼 훌륭한 '메신저' 역할을 해줄 거물급 연사와 충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경영 사상가들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결과 속이 모두 팍 찬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참석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에도 힘썼다. 포럼 참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을 개설, 참석자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하나라도 더 풀어주기 위해 힘썼다.

동아비즈니스포럼은 '코틀러 어워드' 제정을 계기로 국내 마케팅 혁신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전략연구소 이방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방예대

지난 12월 6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 2017'에서 필립 코틀러 노스웨스턴대 석좌교수(가운데)가 기조연설을 마친 뒤 패널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성장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2018년 DNA 프린티어 연수자 선발

기자·PD·미디어경영 등 다양한 직군에서 뽑혀

2018년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빌 5명의 'DNA 프린티어' 연수자들이 확정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12월 27일 통합 인재육성위원회를 열고 △해외연수 2명 △글로벌 크리에이터(단기 탐방 프로그램) 3명 등 모두 5명의 연수자를 선발했다.

올해 여름부터 1년간 진행되는 해외 연수자로는 동아일보 편집국 이성호 차장(사회부)과 채널A 보도본부 천상철 차장(편집부)이 나선다. 두 사람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난보도 연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주제로 미국에서 연수할 예정이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부문의 연수 기회를 잡은 제작본부 이원웅 PD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향한다. 최대 한 달간 뉴

미디어 및 게임 트렌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기관들을 집중 탐방할 계획. 게임 콘텐츠 특유의 스토리텔링, 화면 연출 기법 등을 예능 프로그램에 접목하겠다는 목표로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동아일보 AD본부 김영환 차장은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채널A 전략기획본부 신화섭 과장은 건강식품의 메카 호주를 탐방지로 정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현지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업무 성과까지 노리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다.

DNA 프린티어 연수자들은 오는 2월부터 여행에 오른다. 국경과 한계를 넘어선 이들의 도전이 우리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 DNA 프린티어 연수자 선발

프로그램	선발자
해외연수(1년)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이성호 차장 · 채널A 보도본부 편집부 천상철 차장
글로벌 크리에이터	· 동아일보 AD본부 미디어기획팀 김영환 차장급 · 채널A 전략기획본부 사업기획팀 신화섭 과장급 · 채널A 제작본부 제작1팀 이원웅 PD

# 가슴이 뭉클합니다, 동아일보 1월 26일 3만 호 발행

### 독자 대상으로 인증샷 이벤트 진행 동아일보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아하! 東亞' 코너 3만호 당일까지 게재



동아일보가 1월 26일 역사적인 3만 번째 신문 발행을 맞는다.

일제의 강제 정간과 폐간 등 탄압과 1970년대 백지광고 사태를 비롯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독자와 국민의 성원으로 97년 9개월여 만에 3만 호의 탑을 쌓게 된 것이다. 3만 호 발행을 앞두고 다채로운 기획 기사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 다채로운 기획 시리즈

우선 '나와 동아일보' 코너는 동아일보와의 인연을 맺어온 저명인사들의 기고로 꾸며지고 있다.

첫 회에는 1989년 입사해 21년 간 동아일보에서 취재현장을 누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글과 사진이 실려 화제를 낳았다.

이 총리에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숙선 명창, 허영만 화백의 사연이 지면에 실렸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동아일보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에 실렸던 광고를 통해 당시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광고로 본 東亞' 시리즈도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구층제 광고와 '결혼식 답례품으로 설탕상자'라는 광고 문구는 젊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안겼다.

이밖에도 '아하! 東亞' 코너는 동아일보 제호 탄생의 비화 등 독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동아일보의 숨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과 사진은  
동아일보 3만 호 지면에서  
소개될 예정

#### 독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

독자들이 동아일보를 읽고 찍은 인증샷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24일까지 계속된다. 벌써부터 수백 명의 독자들이 응모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 연령층도 오랜 기간 동아일보와 함께한 할아버지 독자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문을 읽는 초등학생 독자까지 다

양하다.

박국원 씨(57)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68년 당시 동아일보 마크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찍은 가족사진을 보내왔다.



독자들이 보내온 동아일보에 얽힌 사진들. 독자들이 보내온 사진과 응원글은 3만 호 지면에 소개될 예정이다.

박 씨는 "할아버지가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하셨는데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동아일보 티셔츠가 동네에서 최고 인기였다"며 당시 추억을 떠올렸다.

태안여고 2학년엔 재학 중인 박원빈 고민정 양은 기숙사에서 구독 중인 동아일보를 펼쳐보이며 인증샷을 찍었다.

박 양은 인증샷과 함께 보내온 사연에서 "아침마다 우리 반에 최신 정보통

역할을 해주는 동아일보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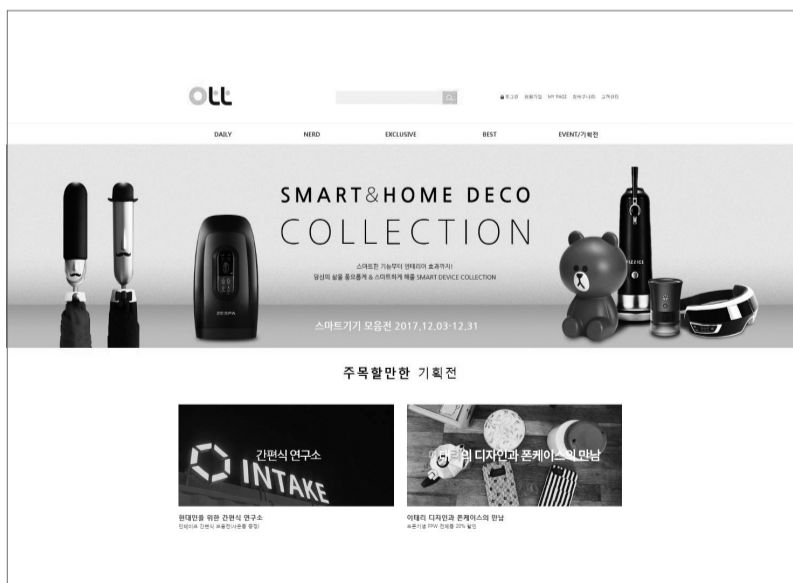
어린 시절 동아일보 신문을 보며 한글을 댤 중년의 독자의 이야기, 아침마다 교실에서 동아일보가 최신 정보통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여고생의 사연 등 독자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과 사진은 동아일보 3만 호 지면에 소개될 예정이다.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김철중



## 채널A, 신개념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오티티닷컴' 오픈

### 포미(FORME)족 위한 맞춤형 쇼핑물... 커머스시장 새 활력 웹진, 동영상 등 제작 통한 온라인 채널 브랜드로 발돋움



오티티닷컴 홈페이지. 오티티닷컴은 온라인쇼핑몰이면서 채널A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플랫폼 역할도 담당한다.

채널A가 온라인쇼핑몰 '오티티닷컴(shop-ott.com)'을 지난해 12월 3일 공식 오픈했다. 오티티(OTT)는 One, Two, Three의 약자로 사람의 첫 인상이 약 3초면 결정되는 것처럼 상품 구매 결정 또한 3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티티닷컴의 주요 타겟은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미

족(FORME)'이다. 포미족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층을 의미한다. IT기기 패션 취미 등 특정 분야만큼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포미족의 소비 특성을 고려해 오티티닷컴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대기업 제품이나 가격 비교를 당하는

생필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중소기업 제품과 실용성에 재미까지 더한 유망 스타트업 제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한데 모아 포미족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르크 스피커'가 대표적이다. 코르크 스피커는 '도전! K-스타트업 2016 왕중왕전'에서 국방부장관상을 받은 상품으로, 빈 병 입구에 꽂아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빈 병을 울림통으로 활용해 좋은 음질과 휴대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오티티닷컴은 채널A 미디어커머스 사업의 플랫폼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판매 상품을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하고 이를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식이다. 일례로 <도시어부> 11회에 등장한 '코르크 스피커'의 경우 오티티닷컴에서 '도시어부 익룡 스피커'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을 자체적으로 기획 및 생산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오티티닷컴의 목표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 성공이 아니다.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웹진, 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해 오티티닷컴을 하나의 온라인 채널 브랜드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다.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 이시경

## 동아의 A-Pride 콘텐츠, 빛났다

2017년 연말, 외부기관들이 주관한 언론 관련 시상식에서 동아일보가 잇따라 수상하며 'A-Pride 콘텐츠'의 저력을 인정받았다. 수상 분야도 기사와 사진, 어문 등 다양했다.

전국 47개 대학, 140여 명의 청년들을 인터뷰 해 청년 실업의 실태와 대안을 짚은 편집국 특별취재팀의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시리즈는 지난해 12월 12일, 제35회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 부문에 선정됐다. 취재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전한 크로스오버 형태의 보도 방식을 활용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손효주 기자는 국방부에서 연말아 특종을 터뜨린 활약을 인정받아 12월 28일, 한국여기자협회가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

했다. 손진호 기자는 신문의 언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2월 6일 한국어문기자협회가 주관한 제29회 한국어문상 대상을 받았다. 조은아, 김예윤, 김재명 기자의 '그림자 아이들' 시리즈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상을 받았다. 제321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11월과 12월 연말아 만해언론상 특별상과 한국기독언론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밖에 양희성 기자는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한 제178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피쳐 부문 최우수상(사진)을, 박재덕 기자는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선정한 제23회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사진)을 수상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남호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 부문에 선정된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시리즈(1).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을 받은 박재덕 기자의 '반도 못 뛰고...'(2). 이달의 보도사진상 피쳐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양희성 기자의 '우리들은 자란다'(3).

#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 학교 / 직장
- ③ 입사 후 포부
- ④ 요즘 관심사



**이슬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IP법무팀

- ① 1989년
- ②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③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소통 능력으로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 신속히 대응해 동아미디어그룹 가족들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④ 합격 발표 이후 처음으로 혼행(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 같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행 추천합니다!



**김여울**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1994년
- ② 연세대 사회학·경영학
- ③ 빨리 업무를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하고 때로는 실수를 할지도 모르지만 매 순간 배워나감에 진정한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 ④ 집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퇴근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방, 아늑한 방을 만들고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명과 작식 테이블을 찾던 중입니다.



**박석희**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1990년
- ② 고려대 지리교육학·경영학
- ③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부지런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④ 플라잉 요가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못 하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고급반으로 넘어가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진성**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1990년
- ② 고려대 불어불문학·인문학
- ③ 콘텐츠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진 채널A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자세로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신대륙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 ④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사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 취향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욱진**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1990년
- ② UCLA 경제학·멀티미디어저널리즘
- ③ 글로벌 채널A를 만들겠습니다. 채널A의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 알리고 미디어 산업의 한류를 선도하겠습니다.
- ④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휴가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생각 중입니다. 두바이에 가고 싶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북미를 제외한 곳은 어디든 좋으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정연**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1994년
- ② 이화여대 국어국문학·방송영상학
- ③ 동아미디어그룹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쌓아가며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④ 신입사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2018년 새해의 목표는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세우고 싶습니다. 또 끝까지 달성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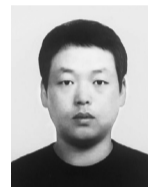
**정세교**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1989년
- ② 서강대 법학·신문방송학
- ③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스타트업에 창업해 1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채널A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 ④ 최근 드론 운전이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 놓고 날릴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큰 집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습니다.



**오민아** / 채널A  
전략기획본부

- ① 1993년
- ② 서울대 미학·언론정보학
- ③ 좋은 콘텐츠가 계속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채널A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 ④ 3년 반을 함께한 스마트폰 갤럭시S5와 이제 이별하려고 합니다. 아이폰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까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전경남** / 채널A  
제작본부 제작PD

- ① 1977년
- ② CJ E&M(Mnet) / <언프리티랩스타> 시즌 1, 2, 3
- ③ 젊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채널A' 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④ 아내에게 건강하고 든직한 남편,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 東友는 몸신이다

### 안성맞춤 힙업 운동법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처지고 납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크게 위축되고 하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으면 척추를 휘게 만들어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엉덩이 모양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몸신에서는 엉덩이 근육을 탄력 있게 올릴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꾸준히 따라하면 탄탄하고 자신 있는 뒤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을 향해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양 손은 어깨 아래에 둔다. 오른쪽 다리를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위로 올린 후 무릎을 90도로 접어준다. 이어 다리를 내릴 때는 오른쪽 무릎을 왼쪽 종아리 옆으로 내려 자세를 살짝 꼬아준다. 다시 오른쪽 다리를 제자리로 돌리며 허벅지를 뒤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준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운동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성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손은 어깨 아래에 둔다.



② 오른쪽 다리를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올린 후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위로 올린다.



③ 오른쪽 무릎을 내릴 때 왼쪽 종아리 뒤를 지나쳐 왼쪽 무릎 바깥으로 천천히 내려준다.



④ 오른쪽 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허벅지를 뒤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준다. 양쪽 15회, 3세트씩 실시.

### 로이 릭틴스타인부터 앤디 워홀까지... '하이, 팝' 전

1960년대 이후 미국을 거쳐 전 세계를 뒤흔든 팝아트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전'이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 로버트 라우션버그, 로이 릭틴스타인, 키스 해링 등 세계적 팝아트 작가 5명의 작품 160여 점을 선보인다. 팝아트 작품 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만화를 팝아트로 재해석해 예술의 새 시대를 연 로이 릭틴스타인을 중심으로 앤디 워홀의 '베토벤', 키스 해링의 뉴욕 지하철 광고판 등 다양한 작품들을 둘러볼 수 있다. 전시 외에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린트 팩



로이 릭틴스타인의 '헤어 리본을 한 소녀'.

토리'와 팝아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강좌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는 4월 15일(일)까지 열린다. 입장료는 일반 1만6000원, 중·고·대학생 1만2000원, 어린이 8000원. 문의 02-3451-8187.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희현

### '채널A 서포터스' 제9기 출범...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채널A 서포터스' 제9기 발대식이 지난 12월 4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주부 및 대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는 2018년 5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채널A 프로그램 홍보 활동에 나선다.